

뷰티부터 IT까지... '팔로우미' 리뷰로 전할 꿀팁

패션뷰티·IT·푸드 등 리뷰 콘텐츠 프로그램

20~30대 여성 관심사 다룰 예정...내일 첫방송

대세 뷰티 스타들이 '팔로우미-리뷰ON'으로 뭉쳤다. 뷰티와 관련한 다양한 리뷰를 통해 꿀팁을 전달해주겠다는 포부가 기대를 높인다.

17일 오전 패션엔 '팔로우미-리뷰ON' (이하 '팔로우미')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산다라박 안현모 김나희 오영주 윤소희 자축이 참석했다.

'팔로우미'는 패션뷰티, IT & 라이프, 푸드 등 총 3가지 분야의 전문가 셀럽들과 함께 하는 리뷰 콘텐츠 프로그램이다. 20~30대 여성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콘텐츠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안현모는 "뷰티와 패션 리뷰를 맡게 됐다"라며 "처음으로 뷰티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하고 싶었던 분야를 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제도

촬영이 끝나고 촬영 감독님이 '안현모씨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라며 "제가 많이 내려놨다. 정말 저다운 모습이 담긴 것 같다"라고 말해 기대를 높였다.

지축은 " '팔로우미' 는 전통이 있는 뷰티 프로그램이다"라며 "이번에는 IT가 추가가 됐는데 제가 IT덕후로서 IT에 대한 꿀팁 많이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출연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축은 "저는 워낙 평소 뉴스를 보면서 IT 카테고리들 살펴보는 데 더 꼼꼼하게 볼 생각이 다"라며 "예전에는 새로운 제품을 보면 '어떨까?' 생각만 들었는데 요즘은 '사볼까?' 생각을 할 정도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오영주는 "저는 푸드 분야 리뷰를 맡았다"라며 "건강하게 먹는 습관에 대해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리뷰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산다라박은 "저는 ('팔로우미'에서) 뷰티와 패션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오랜만에 뷰티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렌다. 좋아하고 아는 분야를 많이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산다라박은 뷰티와 패션 리뷰를 위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공부하고 해봤자 신상품이 뭐가 나왔나를 찾아보는 거다"라며 "사실 신상품이 나오면 아는 점장님이 연락이 온다. 그 와중에 총동구매도 많이 한다. 자제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소희는 "뷰티프로그램을 처음 하게 됐는데 다양한 분야를 리뷰할 수 있어 재밌을 것 같다"라며 "IT 트렌드 분야를 맡았는데 속 시원하고 꼼꼼하게 리뷰를 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소희는 "저는 리뷰를 하려고 하면 요즘 핫한 걸 알아야 한다"라며 "그래서 트렌드를 알기 위해 SNS를 많이 찾아보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려 하려고 옛날보다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다"라고 프로그램을 위해 쏟은 노력을 밝히기도 했다.

김나희는 "저는 먹잘알이다"라



며 "제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인데 맛있는 건 표정에서 티가 난다. 그런 재미를 '팔로우미' 보면서 캐치하는 재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김나희는 자신의 먹방 철

학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김나희는 "많은 사람들이 저탄지를 따지는데 저는 탄탄지를 더 챙긴다"라며 "짜고 달고 지방덩어리인 것을 더 생각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팔로우미'를 통해 많은 꿀팁을 전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방송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팔로우미'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처음 방송된다.

'악의꽃', 이준기에 수감채운 문채원 '강렬 포스터'

7월22일 오후 10시50분 첫 방송...고밀도 감성 추적극



'악의꽃'이 오는 7월 첫 방송을 확정된 가운데 이준기와 문채원 사이의 고밀도 텐션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7월22일 오후 10시50분 첫 방송을 확정된 tvN 새 수목드라마 '악의꽃' (연출 김철규/극본 유정희)은 사랑마저 연기한 남자 백희성(이준기 분)과 그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 차지원(문채원 분),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 마주 선 두 사람의 고밀도 감성 추적극이다. 딸 백은해(정서연 분)와 함

께 행복하게 지내오던 부부 백희성 차지원의 일상에 '14년간 사랑해 온 남편이 연쇄살인마로 의심된다면?'이라는 물음이 던져지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독창적인 서스펜스 멜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준기(백희성 역), 문채원(차지원 역)의 농밀한 멜로 케미스트리와 섬세한 감정 연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공개된 포스터 속에 수감된 두 사람이 서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모습이 담겨 시선을 집중시킨다.

특히 극 중 금속공예가인 백희성의 작업실이 취조실로 변한 듯, 날카로운 형사의 눈빛을 한 차지원이 책상을 가운데 둔 채 그와 대립하고 있다. 순순히 손을 내어주며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는 백희성의 서늘한 표정은 미스터리한 긴장감을 배가, 차지원은 그런 그를 금방이라도 체포할 듯 손목을 힘주어 잡고 있지만 눈빛에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친다.

'완벽한 믿음을 흔드는 잔혹한 진실'이란 문구 역시 둘 사이에서 피어난 가시 돋친 '악의 꽃'을 암시, 과연 백희성이 감춘 것이 무엇이며 이를 파헤쳐갈 차지원이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 시청자들을 더욱 기다리게 만든다.

'악의꽃' 제작진은 "극 중 백희성과 차지원 사이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 그 관계와 구도를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준기와 문채원 두 배우 모두 콘셉트에 대해 더욱 신중히 논의하고 중간 중간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임해왔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노력하고 있다. 첫 방송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악의꽃'은 '자백' '마더' '공황기는 길'의 김철규 감독의 믿고 보는 연출과 탄탄한 필력을 가진 유정희 작가의 독창적인 대본, 이준기, 문채원, 장희진, 서현우 네 배우가 의기투합한 드라마로 오는 7월22일 오후 10시50분 처음 방송된다.

'사재기 의혹 실명 거론' 박경, 허위사실 유포혐의 검찰 송치

블라비 박경(27)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 불구 속 기소 의견 속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박경 측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소속사 세븐시즈스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경찰 측의 박경에 대한 검찰 송치 예정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 절차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

럼 송하예처럼 잠재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크게 번졌고 박경 소속사는 "박경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이라며 "직접적

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란 입장을 냈다. 이어 "이는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여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

'컴백' 블랙핑크, 블랙 콘셉트 티저 공개...짙은 카리스마

신곡 콘셉트 궁금증 자극...26일 오후 6시 선공개



컴백을 앞두고 있는 블랙핑크가 화이트에 이어 블랙 의상으로 무장한 과격적인 스타일 변신을 예고하며 신곡 콘셉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17일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에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의 블랙 콘셉트 포스터 4종을 게재했다.

블랙핑크는 앞서 공개한 첫 번째 타이틀 포스터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의 호기심을 한껏 끌어올렸

다. 이들은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신곡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새롭게 베일을 벗은 두 번째 타이틀 포스터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콘셉트의 비주얼과 블랙핑크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눈길을 끈다.

한층 짙고 강렬해진 카리스마를 뽐내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휘감아버렸다.

로제는 오묘한 컬러의 헤어를 양갈래로 묶어 도도하고 핑키한

매력을 선보였다. 제니는 화이트 컬러의 꽃이 눈에 띄는 블랙 베일 모자를 쓰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아우라를 뽐냈다. 베일 사이로 보이는 제니의 고혹적인 눈빛이 인상적이다.

리사는 붉은 입술 위 피어싱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앞서 공개된 붉은 컬러의 헤어가 아닌 블랙 베일 헤어스타일과 어두운 아이메이크업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수는 밝은 색 브릿지가 들어간 검은 긴 생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몽환적인 표정으로 분위기를 압도했다.

포스터 하단에는 블랙핑크의 선공개 타이틀곡 이름 '하우 유 라이크 댓'이 박혀있고 신곡 발표일 '2020.06.26 6PM' 문구가 더해져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블랙핑크는 오는 26일 오후 6시 선공개곡 '하우 유 라이크 댓'으로 컴백한다. 이후 7~8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로 '더 쇼' 컴백 동시 1위 "너무 감사"



그들 우주소녀가 컴백과 동시에 음악방송 1위에 올랐다.

16일 오후 방송된 SBS MTV '더 쇼'(THE SHOW)에서 우주소녀는 컴백과 동시에 더 쇼 초이스를 수상하며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우주소녀는 " '더 쇼' 첫 컴백 무대인데 1위 주신 '더 쇼' 너무 감

사드리고 소속사와 스태프 분들께도 감사하다"며 "우주소녀 가족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정(공식 팬클럽)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컴백하고 같이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항상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대 하겠다. 우정들 사랑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우주소녀는 신보 '네버랜드'로 성공적인 컴백 무대를 꾸렸다. 수록곡 '바람'(Where You Are)에서는 색색깔의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우아한 무용을 연상케 하는 안무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했고 타이틀 곡 '버터플라이' (BUTTERFLY)로는 나비를 표현한 순백의 의상으로 맑고 순수

한 비주얼을 완성, 파워풀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받게 만들었다.

지난 9일 신보 '네버랜드'로 가요계에 컴백한 우주소녀는 어른이 되어가는 소녀가 불안한 미래와 흔들리는 자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곡 '버터플라이'로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앨범은 예시의 자작곡 '꽃놀이'(Tra-la)와 설아의 자작곡 '우리의 정원'(Our Garden)을 수록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고, 발매 직후 한터차트 일간 음반 차트 1위에 올랐으며 2일 만에 전작의 초도 판매량을 제치고 자체 초동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